오通 배움+
오通 행복+

사하구평생교육신문

사하배움마당

제20호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구

발 행 사하구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 화 220-4801~6 팩 스 220-4809 발행일 2019. 8. 20.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평생교육 인문학부터 자격증까지

하반기 사하구 평생교육 9월 2일부터 개강

하반기 평생학습 강좌가 9월2일 '타로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강한다. 하반기에는 인문, 교양, 자격증 과정까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다. 직장인, 장애인, 젊은이와 노인을 아우르는 강좌가 많아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접수는 8월 1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이다.

구민의 요청으로 다시 개설된 '이야기가 있는 차 테라피', 폭발적인 요구로 핸드드립을 더한 바리스타 2급 과정은 주·야간으로 진행한다. 또 하나의 언어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수어회화 기초반도 주·야간으로 개설한다. 신설한 강좌로는 '레진아트 생활소품 DIY', '드론과학지도사', '점자 그림책 만들기', '생애설계로 준비하는 은퇴전략' 등이 있다. 특히 '점자 그림책 만들기'는 수업 중에 만든 점자 동화책을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이라 의미가 크다. 은퇴를 앞둔 장년이라면 재무를 통한 지혜로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생애설계로 준비하는 은퇴전략' 강좌를 수강해보기 바란다. 계속 인기리에 진행되는 강좌로는 '낙동인문열전', '제4기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가 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개설한 '나를 위한 근사한 혼밥 한 끼' 강좌도 주목할 만하다. 취업과 창업을 생각한다면 '타로심리상담사 2급', '가죽공예지도사 2급', '색채심리상담사 2급', '바리스타 2급', '캘리그라피 2급'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영화 속 도시이야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의 건축', '색채미학과 현대 미술로 접근하는 인문학', '역사 속 유배지에서 발견하는 세계'와 같은 강좌를 권한다. 추석을 앞두고 1회 진행하는 전통과자 만들기와 초등학생을 둔 가족이 함께 하는 주말특강도 눈여겨 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사하구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지원해주는 배달강좌도 운영한다. 배달강좌는 구민 7명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공예, 인문, 생활체육분야 25개 강좌가 있다.

유명 강사가 생활 전반에 걸친 주제로 진행하는 사하아카데미는 매달 세 번째 수요일에 열린다. 하반기 사하아카데미는 9월 18일 현역에서 은퇴한 방송인 이상벽 씨가 '인생 이모작'이란 주제로 첫 테이프를 끊는다.

행복학습센터와 동네방네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강좌도 가깝고 편리하게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천할 만하다.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행하는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맞는 강좌 한 가지쯤 수강해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http://www.saha.go.kr/edu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기간	요일	시간	인원
타로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성인	9.2.~11.25.(13회 39시간)	월	10:00~13:00	40
이야기가 있는 차(茶)테라피	성인	9.9.~10.28.(8회 16시간)	월	10:00~12:00	20
레진아트 생활소품 DIY	성인	11.4.~11.25.(4회 8시간)	월	10:00~12:00	20
핸드드립과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①	성인	9.16.~11.11.(16회 32시간)	월	10:00~12:00	20
우리가 사랑한 영화 속 도시이야기	성인	10.21.~11.25.(6회 12시간)	월	10:00~12:00	30
드론과학지도사	성인	9.3.~11.19.(12회 24시간)	화	10:00~12:00	30
점자 그림책 만들기	성인	9.3.~11.5.(18회 36시간)	화,수	10:00~12:00	20
색채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성인	9.3.~10.2.(10회 30시간)	화,수	10:00~13:00	30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의 건축	성인	10.22.~11.26.(6회 12시간)	화	10:00~12:00	30
수어회화 기초반 ①	성인	9.3.~ 12.10.(15회 30시간)	화	14:00~16:00	30
추석맞이 전통과자 오란다 만들기	성인	9.11.(1회 2시간)	수	10:00~12:00	20
낙동인문열전	성인	9.18.~11.27.(10회 20시간)	수	10:00~12:00	30
역사 속 인문학 유배, 절대고독 속에 발견한 세계	성인	10.16.~11.27.(6회 12시간)	수	10:00~12:00	30
캘리그라피 2급 자격과정	성인	9.5.~11.7.(8회 24시간)	목	10:00~13:00	20
제4기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성인	9.20.~12.27.(15회 30시간)	금	10:00~12:00	50
가죽공예지도사 2급 자격과정	성인	9.6.~12.20.(15회 45시간)	금	10:00~13:00	20
나를 위한 근사한 혼밥 한 끼	성인	11.4.~11.25.(4회 8시간)	월	19:00~21:00	20
색채미학과 현대미술 인문학	성인	9.9.~11.11.(10회 15시간)	월	19:30~21:00	40
수어회화 기초반 ②	성인	9.2.~12.9.(15회 30시간)	월	19:00~21:00	20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②	성인	9.9.~11.25.(12회 24시간)	월	19:00~21:00	20
생애설계로 준비하는 은퇴전략	성인	9.2.~10.28.(9회 18시간)	월	19:00~21:00	30
업사이클링 모스 커피 화분만들기	가족	11.23.(1회 2시간)	토	10:00~12:00	20
아빠와 함께 레이싱 미니카 만들기	가족	9.28.(1회 2.5시간)	토	10:00~12:30	20
가족이 함께 만드는 수제 두부 버거	가족	11.23.(1회 1.5시간)	토	10:30~12:00	30

사하다행복교육지구

좋은 부모, 좋은 어른 되기 프로젝트

9월 6일에는 구성애의 성교육 특강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가 좋은 부모, 좋은 어른에 대한 상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부터 다행복교육지구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하다행복교육지구 학부모아카데미는 구성애 초청강연(9.6)과 학부모성장아카데미(9회차, 9.5~11.14)로 구성되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 이슈화되는 학부모 성교육을 통한 건강한 자녀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성애 초청강연은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와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연합회가 함께 기획·준비하여 학부모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학부모성장아카데미는 매 강의마다 소통, 인문학, 성교육,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등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행복교육지구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일정

일시 및 장소	프로그램명
9. 6.(금) 10:00 본관4층 대강당	구성애와 함께하는 사춘기 자녀알기
9. 5.~11. 14. 10:00 (매주 목요일, 9차시) 평생학습관 제3강의실	다행복교육지구를 이끄는 학부모성장 아카데미

문의 :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 051-220-4932
https://www.saha.go.kr/happyedu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생태 고우니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개최

26일부터 선착순 모집

생태 고우니 해설사와 함께하는 하반기 사하자연학교가 열린다. 다음 달 17일부터 7개 코스로 모두 31회 열린다. 이달 26일부터 신청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몰운대 자연학교와 승학산 자연학교가 따로 열린다. 특히 가족 참석은 6세 이상의 아동을 동반한 2인 이상이면 참여가능하고 타인끼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기관은 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하자연학교에서는 생태관찰과 체험놀이, 생태공예 등을 배운다. 반기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체험료는 무료이며 초등학교가 단체로 신청할 경우 차량도 지원한다. 바닷가를 끼고 체험하는 몰운대 자연학교 강의는 9월24일부터 11월9일까지이며, 숲길을 벗 삼아 산책하는 승학산 자연학교는 9월17일부터 11월2일까지 가족 단위는 토요일, 기관 단위는 화요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가을을 준비하며 이런 프로그램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기 획

한여름의 피서는 장림 작은도서관에서

사하구에는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올 한 해 동안 17개의 작은도서관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6회에 걸쳐 소개한다.

장림 1동에는 무지개 작은도서관이 있다. 2013년 주택을 개조하여 문을 연 무지개 작은도서관은 장림시장 입구에 있다.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다문화실, 2층에는 일반 열람실과 강의실, 3층에는 학습실을 갖추고 있다.

소장도서는 만권정도이며 문학도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한 달에 두 번 서른 권의 신간을 주문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영유아 어머니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이다. 여름방학특강으로 2층 강의실에는 6~7세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랑 놀자', 초등학교 전 학년을 위한 '별난 역사톡톡' 강좌가 열리고 있다.

장림 2동에는 수풀 작은도서관이 있다. 14번째 문을 연 구립 작은도서관으로 영남중학교 진입로 골목길에 있다. 소장도서는 칠천여권이고 1층은 어린이 열람실, 2층은 일반열람실과 프로그램실이 있다. 주로 어린이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부하는 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다.

09 무지개 작은도서관

10 수풀 작은도서관

이곳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으며, 프로그램실은 강의실이 필요한 일반인에게 대관도 해주고 있다.

여름방학특강으로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마음이 쑥쑥 자라는 공예교실', 초등학교 4-6학년을 위한 '창의건축 메이커교실'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작은도서관들은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상호대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 대출·반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방법은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바벨의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하나의 세계로 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지식이 담긴 도서관. 그것은 하나의 세계가 분명하다.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것이다.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지식의 세계 속으로 피서를 가는 것은 어떨까.

문의 : 무지개 작은도서관 265-0245
수풀 작은도서관 265-4832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평생학습으로 마을과 공동체를 엮어간다

괴정2동, 신평1동, 장림1·2동 평생학습빌리지 강좌 개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하구는 2015년부터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괴정2동, 신평1동, 장림1·2동 행복마을이다.

괴정2동 까치고개마을 행복마을에 위치한 행복센터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2회 과정으로 '천연염색 프로그램 기초반'을 운영한다(월 10시~13시). 마을주민이 천연염색을 배우면서 지역과 소통하고 실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이후에는 천연염색 심화과정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천연염색 주민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제적 자립의 기반과 마을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의 행복센터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평1동 동매사랑 행복마을의 동매누리행복센터는 '내 집 앞 작은 숲' 도자기 강좌를 7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10회 동안 연다(금 14시~16시). 마을주민이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제작한 도자기에 화초를 심어서 낙후된 골목의 버려진 공간을 꾸밀 예정이다.

장림1동 바닷가사랑 행복마을의 보림행복센터에서는 '우리마을, 미술교실'을 7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회 과정으로 운영한다(금 16시~18시). 대상은 초등 1~3학년이다. 주제가 마을을 소재로 한 풍경, 사물 등으로 마을에 대한 이해도와 애착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림1동 마을책에 작품을 수록하여 주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려고 한다. 10월 12일에는 주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림2동 수풀메아리회 행복마을은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꽃피는 골목길 프로젝트'라는 강좌를 열었다. 8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6회 과정으로 운영된다(수 10시~12시). 이번 강좌를 통해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인 마을골목에 주민이 만든 화분을 설치해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한다. 일부 화분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면서 이웃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같이 마을주민이 같이 배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복원에 함께 힘쓸 수 있을 것이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손 활동으로 뇌 건강 지킨다

8월 28일·30일 치매예방 특강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하반기 재능기부 치매예방 특강을 연다.

아름다운 손 동아리가 8월 28일 도자기 공예 흙으로 만드는 까치모양 3절 접시 만들기가 열리고, 종이비행기 동아리가 8월 30일 명절 감사 봉투 만들기가 열린다. 손동작으로 두뇌활동을 촉진시켜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번 특강은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강에는 치매를 예방하고자하는 주민과 치매가 진행 중인 이용자와 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글 고운 캘리 동아리에서는 9월 24일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아리 회원 대상으로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캘리그래피 액자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와 연계하여 동아리 구성원의 역량개발과 학습 나눔 활동을 권장하고 강의 경험제공, 연합회 가입에도 취지를 두고 있다."라고 최미소 평생학습동아리 담당자는 말했다.

정체된 뇌를 깨우는 인체의 비밀은 손이며 뇌와 긴밀하게 교감하는 연결고리다. 손을 이용해 치매를 예방하는 이번 특강에 주민의 많은 관심을 기다린다.

문의 : 평생학습 동아리실 051-220-4806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아름다운 그대

전통문화를 사랑한 사람

문화패 '타루' 육영주 단장을 만나다.

문화패 타루의 육영주 단장을 만났다. 중학교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사물놀이 수업을 한창 신명나게 하고 나온 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아해 보였다. '타루'는 배의 조타실에 있는 타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이름이다. 칠 '타' 누각 '루'를 합친 신조어다. 사물놀이패인 문화패 '타루'는 2017년 7월 대티역 근처 지하 공간에서 탄생했다. 단장으로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학과 출신인 육영주 단장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대학 시절 하회탈춤을 연구하는 동아리 '탈패'에서 전통문화와 풍물놀이에 푹 빠졌다. 졸업 후 집안의 반대와 직장 생활, 결혼 등으로 중단된 전통문화에 대한 갈망은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풍물반을 만나면서 되살아났다. 그후 10여 년간 학장동 여성문화회관 풍물반에서 실력을 다졌다. '탈패' 출신 친구들과 함께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년부터는 구덕민속예술관 '고분도리 걸립 보존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동아리 '타루'를 조직하였다. 처음엔 여성으로만 조직해 장애인 관객을 위한 공연봉사를 했다. 현재는 방과후 활동과 지인 추천 등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회원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다. 풍물놀이는 야외공연이 대부분이라 주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풍물놀이 수업은 더 어려울 것이다. "두드리다 보면 흥미가 생기고 작품도 만들어집니다. 전통문화란 원래 우리 몸에 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입니다. 전통을 통해 조상이 지닌 창조력을 재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편안하다.

창단 첫해에는 '비우고 나누고 채우는 행복콘서트' 등 4회의 공연을 했다. 다음 해엔 '다대포 알뜰장터 내 동아리 한마당 길놀이'를 비롯한 공연을 11회나 했다. 올해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벌써 7회의 공연을 했다. 동아리 자체 성과발표회를 통해 회원들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작년에는 사하구 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로 선정되면서 전문적인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다. 올해 7월 11일에는 2년 만에 창단공연을 했다. 오는 9월 21일에는 2회 버스킹 공연 '회화나무 빨래하러 가자'를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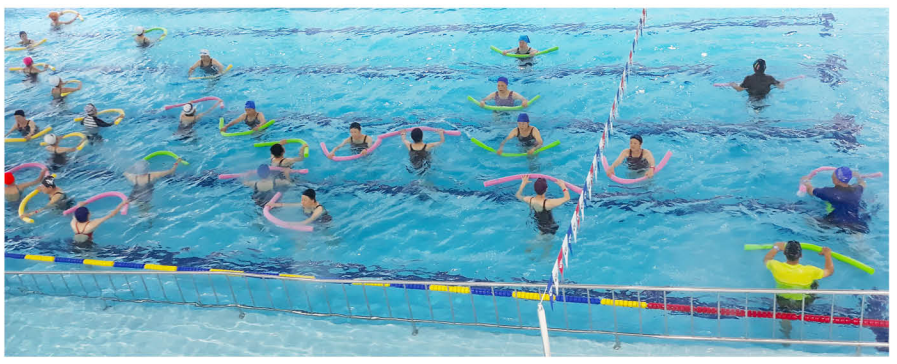
육영주 단장은 시민공원에서, 다대포 야외공원에서 사물놀이와 설장구를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요양병원이든 골목축제든 학생들의 수업이든 풍물놀이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넓고 편안해서 운동하기 좋아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참 편안해요. 오고가는 차편도 좋고 장애인차량을 주차하기도 좋아요. 탁 트인 분위기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에다 직원들의 친절함과 초기의 불편이 개선되어 갈수록 마음에 들어요." 19년 전에 닥쳐온 뇌졸증으로 장애를 가진 양증열(다대동·71)씨와 노금옥(70)씨 부부는 4월부터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수영은 힘들고 아쿠아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수영장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워 애를 태우다 이곳에서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활짝 웃었다.



김성한(신평동·38),김은정(38) 동갑내기 부부도 "수영장의 수질이 좋고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들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집도 가깝고 강사와 직원들도 친절해서 오래도록 이곳에서 운동하고 싶습니다." 라며 개원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이용하고 있다.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3월 22일 옛 을숙도 자동차극장 터에 문을 연 지 4개월이 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의 장소,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부산권에 처음 생긴 시설이다. 정종효 센터장은 수영 이용자가 가장 많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드민턴은 200여명이 사용하며, 헬스장도 17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다. 필라테스, 댄스, 요가 등도 초기에는 인원이 적었으나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개원 3개월 만에 연인원 2,000명의 이용자에 도달하였고 8월 현재 2,300여 명이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답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인증도 받았다. 자동문과 넓은 엘리베이터, 수중 휠체어와 수영장 입수 경사로, 보호자와 함께 하는 가족샤워실, 장애인용 헬스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장애인 비상대피로도 연내 설치될 예정이고 옥외 주차장도 확장 할 계획이다. 운영시간도 이른 오전과 저녁시간에는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고 오후 2시부터 6시에는 장애인과 초등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은 270여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1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이용자가 많은 만큼 안전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편사항도 건의서와 온라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 가며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등록회원들에게 체력수준의 측정 평가,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주는 「국민체력100」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하단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센터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08:30~16:30 이다.

문의 : 203-7780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www.sbsd.kr)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동아리톡톡

스스로 연습하며 성장한다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푹 빠진 '글고운 캘리'

'글고운 캘리'는 캘리그라피가 좋아서 만든 동아리이다. 2016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캘리그라피 2급 자격증 강좌를 수료한 15명이 모여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 7명이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회원이 있어 학원에서 스터디를 하거나 카페에서 모임을 진행하였다. 올해 6월부터는 굿윌치과와 연계해 매주 금요일 10시~12시 굿윌치과 카페에서 '캘리그라피 원데이클래스'를 열며 스터디를 하고 있다.

회원은 마을활동가와 마을교사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수업과 재능기부로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다선중학교에서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들과 옹벽부조벽화 만들기에 참여하였다. 또 마을 되살리기 축제에서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요양병원, 노인보호센터, 복지관의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엽서에 압화 스티커를 붙이고 자신이 쓴 작품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뿌듯해 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회원 신미애(40세·하단2동) 씨는 손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부인 이름과 사랑해라는 단어를 쓰고 면회날 부인에 선물한다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뭉클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전시실과 카페 포레스트 3002의 지하공간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며 회원들은 한 단계 성장했다. 준비 과정에서 의견차도 있었고 따로 지도해주는 분이 없어 힘들었지만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꾸준히 연습하였다. 그 결과 전시회 작품은 훨씬 나아졌고 역량을 개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회원 주혜정(52세·하단2동) 씨는 "모방하는 것은 잘하지만 나만의 글씨체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학창시절 배운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늘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회원 모두에게 있어 교재를 만들었다. 선긋기에서부터 문장까지 넣어 개인 강의 때 쓸 수 있는 교재이다.

2019 대한민국부채예술대전에서 회원들이 입선, 특선을 수상하고 작품은 서울 인사동에 이어 거제시에 전시되었다. 올해는 부산문화재단 예술가 단체와 협업하여 프로젝트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청소년네트워크, 다행복축제로고 등 사하구 곳곳에서 글고운 캘리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유영미(49세·하단1동) 회장은 "협회에 속하지 않아 힘든 점도 있지만 동아리로 결성되어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거 같다. 회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여 주민강사에서 캘리 전문작가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홈카페에서 북유럽으로 떠나는 여행

사하구 평생학습관 인기 여름 특강

폭염을 이기기 위해 시원한 카페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많다. 길거리에 즐비한 커피전문점 대신 조용히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내며 여름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여름 특강 중 하나인 핸드드립으로 카페메뉴 따라잡기 수업을 듣는다면 홈카페도 문제 없다. 커피의 역사와 문화, 로스팅, 산지별 원두 핸드드립,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추출법, 음료 제조까지 전반적으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많았고 수업 집중도가 높았다.

수강생들은 여러 가지 커피를 직접 만들고 맛을 보며 즐거워하였다. 그 중에 에스프레소와 얼음조각을 넣고 흔들어 거품을 내서 마시는 샤케라또는 뜨거운 이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홈카페 메뉴로 인기가 많았다.

박진희 강사는 터키의 재미있는 커피 문화도 이야기해 주었다. 터키에서는 커피를 끓이는 모습으로 미래의 신부를 결정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커피를 내리는 솜씨로 가정교육과 요리 솜씨를 확인하고, 가문을 맡겨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다. 또한 분쇄된 커피 입자 안에 있는 미세한 커피 가루인 미분을 접시에 부어서 그 양과 모양으로 점을 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북유럽으로 떠나는 영화 문학기행 특강도 인기가 높았다.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린 강의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30명 정도의 인원이 출석하여, 한여름 밤 북유럽으로 다함께 휴가를 떠나는 듯한 광경이었다. 총 6회에 걸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를 방문하였다. 인문, 사회, 환경에 대한 소개와 영화나 문학 작가 소개에 이어, 마지막에 영화의 일부분을 감상하는 것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최고령 수강생인 조정남 (73세·다대동) 씨는 "연중 어느 때라도 인문학 강의가 있으면 해운대구나 사상구 어디든 수강하러 간다. 이번 여름엔 집에서 가까운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문학기행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였다. 이번에 북유럽으로 떠나는 영화 문학기행 강의를 들으며 잘 몰랐던 북유럽에 대한 상식과 사회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재미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가현 (21세·하단동) 씨는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다가 우연히 이 강좌를 알게 되어 수강하였다. "북유럽 여러 나라의 영화를 추천해 주는 점이 좋다. 문화수준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이런 좋은 수업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여름 특강으로 열린 나머지 10개 수업의 열기도 얼마나 높았을지 미루어 짐작된다.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제8회 사하 전국독서경진대회

총 5개 분야 27명 시상

사하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독서경진대회를 열어왔다. 올해로 8회째에 접어든 사하 전국독서경진대회는 7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문별 지정도서의 독후감을 받고 있다. 수상결과는 10월 11일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10월 18일 수상식과 함께 독후감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총 650명이 참가하였다.

사하 전국독서경진대회는 초등 저·중·고학년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있다. 각 부문별로 8권씩 지정 도서가 정해져 있다. 일반부의 《82년생 김지영》, 《언어의 온도》를 비롯해 총 40권을 지정했다. 사하구 작은도서관 16곳의 8명의 사서가 현장에서 인기 있는 도서를 1차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동아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결정하였다.

독후감은 1인 1편 제출할 수 있다. 독후감 작성 양식은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고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한다. 학생부는 학교별로 단체 접수도 가능하다. 10월 18일 최종 일반부 5명, 중·고등부 7명, 초등 저·중·고학년 각 5명씩 총 27명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만 65세 어르신에게 주는 특별상도 있다.

문의 : 사하구청 평생학습관 051-220-4835
http://www.saha.go.kr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